

타계급 연대로 풀어야 할 지역적 한계

도시빈민 시리즈 <5> ... 빈민운동의 현과제와 향후 발전 전망

I. 도시빈민운동의 성격

도시빈민은 생산관계에서 도출되는 개념이 아니라 소비영역의 동질성을 기반으로 하는 개념이다. 도시빈민이란 말 그대로 도시에 살고 있는 빈곤한 사람들의 집단을 의미한다. 도시빈민은 독자적인 계급적 실체를 구성하는 생산관계상의 개념이 아니다. 따라서 도시빈민을 생산관계상의 동일한 계급으로 파악하는 것은 인식상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도시빈민은 계급적 동질성에 입각한 집단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상의 동질성에 입각한 집단을 의미한다.

생활상태의 동질성(생활상태의 특정조건: 열악한 주거환경, 불안정한 고용구조)은 빈민을 하나로 묶어주는 기본조건으로 작용한다. 빈민은 소비단위에서 생활상태의 동질성을 갖는 집단으로 설정될 수 있으나 생산단위에서는 이질성을 갖는 여러 계급집단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빈민은 다양한 내부구성을 갖는 사회적 범주로 설정되어야 한다. 이때 자본축적구조의 변화에 따라 대중빈민의 현상형태가 달라지고 빈민의 내적 구성이 변화하게 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자본축적과정에서 빈민은 끊임없이 재생산된다. 빈민의 구성은 해당 시기의 자본축적양식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노동자와 농민, 프리부르주아지의 특정층을 포함한다. 노동자계급하층, 프리부르주아지하층, 도시빈민계급하층이 빈민에 대한 양적 규정의

는 생산영역에서의 계급적 지위(생산관계, 경제적 측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계급상태, 거주지역의 공유, 가족내의 연계 등에서 사회적 동질성을 갖는다.

이들 세 계급 계층은 사회적 부의 몫의 크기에 있어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측면이 크며, 가구단위(소비단위, 생활단위)에서 서로 결합되어 있고, 지역단위에서 공동의 생활상태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생활상태의 공유는 이들을 도시빈민이라는 사회적 범주로의 결집을 마련해주는 객관적 근거가 된다.

생활상태나 거주상태, 또는 고용상태의 측면에서 빈민을 파악하는 경우 빈민을 동질적 구성을 갖는 독립된 계급적 실체로 보기가 쉽다. 그러나 빈민은 노동자계급하층과 프리부르주아지하층 및 반프롤레타리아트를 포함하는 생활상의 동질성에 입각한 사회적 범주개념이다.

도시빈민은 자본제적 생산양식의 전일화과정과 연관된 노동자계급, 프리부르주아지, 반프롤레타리아트가 보여주는 순환계열상의 집단이다. 도시빈민의 내부구성 혹은 자본제적 생산양식의 발전단계와 해당 사회의 축적조건에 따라 변화한다.

이러한 맥락에서는 빈민의 복합적 내부구성과 노동자계급, 반프롤레타리아트, 프리부르주아지하층의 계급순환을 중시하여 빈민운동은 계급연합(동맹)의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빈민의 내부구성을 파악하는 작업에서 빈민의 구성폭을 어디까지 잡을 것인가(빈민에 대한 양적 규정의

문제)와 전체사회에서 빈민의 위상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빈민에 대한 질적 규정의 문제)에 따라 빈민론의 이론적 실천적 함의가 달라진다.

빈민의 내부구성을 밝히는 작업은 해당 사회의 자본주의 발전단계 및 자본축적 양식의 성격에 근거하여야 한다. 특히 도시빈민의 경우에는 이에 더하여 도시화과정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II. 도시빈민운동의 과제와 조직적 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도시빈민의 생활상의 제 문제를 둘러싼 투쟁은 그것이 지역단위에서 행해질 때, 마치 계급적 동질성을 갖는 운동처럼 보여지기도 한다. 그러나 도시생활과 관련된 빈민문제는 도시빈민계급하층이

이처럼 다양한 계급적 구성을 갖는 도시빈민은 무엇에 입각하여 하나의 세력 혹은 사회 집단을 형성하는가. 도시빈민이 하나의 사회적 세력으로 결집될 수 있는 계기는 1)생활상태의 동질성, 2)거주지역의 동질성, 3)고용구조의 동질성, 4)직업 및 생계활동의 동질성 등에서 찾아진다.

이러한 사회적 범주로서의 도시빈민이 결집될 수 있는 집단적 조직화의 형태는 1)지역생활의 동질성을 축소한 거주자 조직(철거지역, 집단거주지: 지역주민조직), 2)생계활동 및 직업의 동질성에 입각한 직업조직(노동조합, 일용노동자연합), 3)고용구조의 동질성에 입각한 조직(하청 및 사회공직), 4)생활상태의 동질성에 입각한 보다 포괄적인 조직형태(실업자동맹, 지역계급동맹) 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의 생활에 깊게 뿌리내리지 못할 경우 운동의 지속성과 조직성은 확보되지 못할 것이다. 빈민대중의 생활과 그들의 생활상의 요구를 정치적으로 결집해내는 능력은 비운동중심체가 일차적으로 확보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다.

빈민운동의 조직적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사안별 조직, 부문별 계층조직, 지역적 특수성에 입각한 다양한 조직형성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확보한 조직간의 연대와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기와 방법에 대한 고려와 모색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빈민대중의 생활상과 생활상의 이해를 반영하는 각종 사업의 일상적 전개와 이에 필요한 조직적 틀의 정비가 요구된다.

도시빈민의 가장 핵심적인 생활상의 요구로 부각되고 있는 주택문제에 대해서는 1)의 지역주민조직을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 건설 요구를 관철시켜야 할 것이다.

도시빈민의 주택문제(불안정한 주거상태와 열악한 주거환경)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유와 사용을 엄밀하게 분리해낼 수 있는 주택전달체제의 형성이 필요하다.

이는 소유권이 국가나 공공단체, 지자체에 있고 사용권은 개

인일 것이다. 그러나 이의 시행을 위해서는 방대한 국가재정이 소모되기 때문에 대중의 정치적 결집과 압력이 조직화되지 않을 경우 임대주택은 희화화될 소지가 다분하다. 따라서 대중적 수준에서 임대주택제도의 시행을 강요하는 여러가지 압력을 조직할 필요가 있다. 이와같은 요구들은 일차적으로 법개정 및 법제정의 요구로 연결되어야 한다.

도시빈민의 불안정한 고용구조를 개선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 3)의 직업조직형태를 활성화하여 고용과 관련된 생활상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결집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예산지원 대책이나 생계보조정책은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으로서 도시빈민의 고용문제를 결코 해결하지 못한다. 최근의 노동시장 단속과 영세업체의 고용감소에서 보는 것처럼 도시빈민의 고용문제 해결은 이해당사자인 도시빈민의 정치적 결집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도시빈민의 생활상의 요구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4)의 조직형태를 꾸준히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빈민운동은 부문운동과 지역운동의 두가지 위상을 갖는다.

첫째, 부문운동으로서의 빈민운동의 위상은 전체 사회운동과

클론은 순서

- <1> 좌담...도시빈민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 <2> 도시빈민 계층의 형성과 성격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
- <3> 도시빈민 투쟁사
- <4> 르포...빈민촌의 주택문제를 중심으로
- <5> 빈민운동의 현 과제와 향후 발전전망
- <6> 소설

있다. 정부의 투기억제를 위한 제도의 개편, 소유와 사용을 분리하는 법률체제의 정비, 근로대중을 위한 임대주택제도의 형성, 고용안정법, 실업대책 등에 관한 전반적 정책변화를 가져오도록 강제하는 힘은 결국 실제 이해당사자들의 생활상의 요구에 입각한 정치적 결집에 의하여 주어진다. 따라서 도시빈민의 생활상의 이해를 결집하고 이들의 생활상의 요구를 체계화해내며, 이에 근거한 정책대안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빈민문제를 해결하는 유효한 방안이 될 것이다.

III. 빈민운동과 지역운동

빈민운동에서는 당초에 그의

체는 지역주민이라는 공간적 규정에 그치지 때문에 부문운동과의 관련이나 지역운동의 본질적 측면으로까지 운동을 발전시키지 못했다. 이의 유일한 조직대안적 방법은 지역차원의 정치적 대중조직을 건설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특정 정당, 정당연합, 지역주민이 가입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지역 자치위원회의 형식은 계급연계관계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이행기나 계급적 이해관계가 사라진 이후의 새로운 사회에서나 가능할 것이다. 현재 사회에서나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조직적 지배형태에서 이러한 지역자주관리를 현실화하기는 몹시 힘들 것이다.

따라서 지역운동의 주체형성 경로에 대해서는 단위 지역에서의 자기 대중에 입각한 각종 지역부문운동들이 상호 연대하면서 상층연대를 형성하는 가운데 상하한 지역주민간의 연대에 입각한 지역주민단체의 형성을 꾀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본다. 이 경우 지역운동의 주체는 특정 주민층의 지도와 선도에 여러 계급·계층이 단일한 사안과 공동의 요구를 중심으로 결집하는 전선적 투쟁체로 수렴될 것이다.

지역주민의 생활상의 이해와 지역적 특성 자체에 기반한 지역운동과 2)부문운동의 지역적 편제와 통일을 의미하는 지역운동은 그의 부수적 위상과 조직체로서 서로 구분되는 것이다. 따라서 두가지 지역운동간에는 상호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의미를 갖는다.

통상 대중조직 건설의 두가지 경로에는 조직대중의 계급 계층적 동질성에 입각한 1)계급 계층별 조직화와 거주공간 및 활동공간의 동질성에 입각한 2)거주지역별 조직화의 방식이 있다. 1)의 빈민지역운동은 비교적 제한된 지역공간을 중심으로 동일 지역내에 거주하는 여러 계급·계층의 동질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지역주민의 행동통일을 모색하는 지역운동이라면 2)의 빈민운동은 비교적 포괄적인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계급·계층 조직의 통일성에 입각하여 지역 수준에서 행동의 통일을 모색하는 것으로서의 지역운동이라 할 수 있다.

전체운동적 차원에서 특정 지역 차원에서 행해지는 여러 계급·계층의 지역운동과 계급·계층적 부문운동을 통일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백옥인
<한신대 강사·사회학>

주택확보등 생존권 요구 대개로 조직화 가능 '지역중심체' 강화 통한 근거지 중심운동 확립 해야

의 문제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발전하기는 하지만 결코 반프롤레타리아트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도시빈민운동이 변혁운동의 일환으로 의미 있는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운동의 기본 요소인 목적의식, 지속성, 조직성이라는 요인들을 결집해야 한다. 대중성의 확보는 이러한 제반 요소에 실질적으로 힘을 불어넣는 관건적 요인이 될 것이다.

빈민운동과 연계속에서 위치지워진다.

특성상 무허가철거민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지역운동의 성격과 주민운동의 특성을 강하게 띠는 빈민지역주민운동이 실현의 장에서 실현되었다.

최근 빈민운동권의 지역운동은 외는 이러한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운동의 주체를 1)지역거주민 전체로 설정하고 이들이 하나의 지역주민조직에 통합적으로 참여하는 형태와 2)단위 지역내에서 각기 상이한 대중에 기반한 대중단체들이 지역차원에서 특정 이슈나 투쟁을 중심으로 상호연대하거나 혹은 상위단체를 구성하여 하나의 공통체로 결집하는 경우 각각 상이한 위상과 전방이 설정된다.

“저점이 처음 문을 연 84년 당시에는 주로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번역서가 판매장의 주류를 이루었는데 88년 이후로 신규 사회과학출판사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출판물도 다양해졌고, 특히 주목할 만한 사항이라면 북한 원전이 많이 출간된 점이지요.”

현제 서울 시내에는 사회과학서점이 30여개 있으며 판매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신촌과 신림동, 그리고 성균관대가 있는 해동동이다.

“학생들과의 많은 대화를 기대하기가 힘들어요. 고작해야 책을 찾아주는 정도나 책내용 소개지요. 가끔 보면 뚜렷한 노선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도 보면 사람은 다른 정파의 책을 전혀 보지 않는 것을 가끔봐요. 그럴때 참 아쉽더군요.”

88년에 결성된 인문사회과학서점 연합회(인사련)의 모임에도 자주 참가해 3개월에 한번씩 신간안내서도 발간한다”며 “사회과학서점이 민족·민주운동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독자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출판사의 획기적 혁신과 독자들의 애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평’ 서점 이준마

김애라(29)씨



“출판사의 과감한 변화와 독자의 사랑만이 사회과학 출판계를 불황에서 구제할 수 있습니다”

아수당하는 처지니 그럴텐데 강희 배상정 구할 엄두도 안나지요, 사실 그런데서 오는 손해도 무시할 수 없답니다”

의 강력한 탄압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5공화국때부터 탄압의 강도가 2.5배 정도 증가했지만 87년 이후 다양해진 독자들의 요구를 출판업계가 소화해내지 못했어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지평서점은 경희대의 지적요구의 충족과 장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사회과학 출판업계가 요즘 불황이예요, 그런 정부

본교 서울캠퍼스 앞에서 사회과학서점인 ‘지평’을 운영하고 있는 김애라씨는 사회과학서점의 전반적인 판매동향에 대해서 위와같이 간단히 언급했다.

84년 이전까지는 회기역 부근의 ‘대학서점’은 현재방이 본교 앞의 사회과학서점으로서의 역할을 근근히 해내고 있던 것을 남원 임병욱(동원, 국문78)씨가 영세한 자본으로나 학생들의 요구와 여타의 필요성을 느껴 서점을 개점하게 되었다고 한다.

출판사도 대부분 영세하지만 각 대학 앞의 사회과학서점들이 일방서점들과

코오롱, 과연 어떤 기업인가?

광섬유와 아미드 섬유를 비롯한 놀라운 신소재로 우주시대의 첨단과학을 선도하는 선두주자 코오롱

각종 고신소재에서 산업용 섬유를 포함한 합성의 전부분에서 업계 정상에 위치를 굳혀온 선두의 명문 코오롱 - 강철보다 강한 섬유아미드판트, 은도에 따라 색깔이 변하는 카멜레온 섬유, 광섬유 등 이렇듯 의생활 혁명을 주도해온 코오롱의 역사는 우리나라 섬유산업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지금껏 우리들에게 익숙한 생각되어 오던 섬유산업이 이제 코오롱의 첨단기술에 의해 지구촌 인류의 미래생활 전 영역을 지배하는 섬유왕국의 미래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등 최첨단 신소재를 포함, 정밀화학과 생명공학에서 미래 세기를 선도하는 코오롱

코오롱의 화학산업분야는 이미 우리생활 가까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신원용 폴리에스터 필름, 고강도 코오롱비디오테이프, 세계 최첨단 기술분야에 연구되고 있는 DAT(다지탈 오디오 테이프) 그리고 강철보다 강하고 불에도 녹지않는 붓의 신소재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에 이르기까지 없는 코오롱의 감성 - 코오롱 290여 명의 연구진이 우리 민족 내일의 첨단화학산업을 앞서 펼쳐가고 있습니다.

항공전자 신소재부터 산업용 고기능 로봇까지 우주시대의 첨단과학을 앞서 개척해 나가는 코오롱

미래산업의 종아라 불리우는 Computer Integrated Manufacturing, 로봇산업 등에서 이미 선두주자로 나선 코오롱 - 각종 공작기계의 동작을 제어하는 수치제어기 CNC를 비롯 산업용 로봇, 공장자동화 시스템의 첨단제어장치인 PLC와 레이저 가공기 등에까지 고부가가치 최첨단 산업에 연구를 집중함으로써 정부의 에너지정책과 국민생활 향상에 큰 몫을 담당해 민족번영의 염원을 실현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MADE IN KOREA'의 우수성과 코오롱만의 신기술로 무역왕국 코리아의 기업을 앞서 나가는 코오롱

무역에 대해 무관심했던 36년전부터 코오롱의 수출 역군은 세계 무역시장을 뒤흔들고 자랑스런 MADE IN KOREA의 신기술기반을 더욱 탄탄히 다져 왔습니다. 열사의 사막에서 방하의 알파노까지 코오롱의 무대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의 생선이 달려있는 지구촌의 이 지대한 무역 전쟁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코오롱은 다음 세기의 다국적 복합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 미래세대의 풍요로운 삶을 약속하는 코오롱

우리의 삶을 편리하고 쾌적하게 가꾸는 일 또한 코오롱의 몫입니다. 첨단기술과 생활을 연결하는 통신사업분야, 신소재를 만들어가는 신소재사업분야, 삶의 질을 높이는 레저 스포츠사업분야 등 오늘날 물론 다음 세기의 행복한 삶을 위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하고 단계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코오롱의 서비스산업 외에는 우리 모두를 위한 미래의 준비가 된 미래의 목표 중의 하나입니다.

토목, 항만, 플랜트 및 최첨단 인텔리전트 빌딩에서 미래도시 건설의 신공법을 앞서 개척해 나가는 코오롱

이제 건설분야는 한도 끝도 없이 성장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국내의 대규모 공사에서 까다로운 해외공사까지 언제나 철저하고 완벽한 시공으로 기술적 명성을 쌓아온 건설의 명문 코오롱 - 세계 두번째로 11공법 해상교량(광안대교)을, 지하 연속벽 시공(부산지하철), 세계의 전문가들에 의해 21세기 건축기술의 종아라 불리우는 서울올림픽 수형경기장 등 정밀시공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코오롱은 축적된 경험과 첨단기술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미래도시의 소망을 이미 구체화하여 건설 한국의 미래를 앞당기고 있습니다.